(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월간 동향

Vol. 7
2019년 05월호
www.northernlogis.kr

발간년월 2019년 05월(제7호) **발행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주 소** (25798) 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자유무역지역관리원 3층
자료문의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물류연구기획팀 **담 당** 센터장 **총 괄** 이사장 **Tel** 033-522-6503 **Fax** 033-522-6505

Contents

- **나침반**
  - 북방경제 중심축! 중국경제를 예의주시해야
- **동해·묵호항 주요 이슈**
  - 강원남부권 수출입 기업 초청 간담회
- **항만·물류 통계 동향**
  - 전국 항만별 러시아 수산물 수입 현황
- **항만·물류 정책 동향**
  - 콜드체인 클러스터 조성 사업
- **국제동향**
  - 러시아 동향
  - 중국동향
- **강원권 산업동향**
  - ㈜동호식품
- **항만·물류 관련 용어사전**
  - 콜드체인

북방경제 중심축! 중국경제를 예의주시해야

엄 광 열 박사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장

올해로 한 · 중 수교 27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북경하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성장 전환기를 마련하고 발전하여 현재는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G2로 성장했다. 최근 미 · 중간 무역분쟁으로 갈등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흥미롭기도 하고, 조마조마하기도 하다. 향후 전개될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남의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외교역에 있어 중국을 패싱하고 우리나라 산업전반을 논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그동안 중국과의 교역에 힘입어 지리적 인접지역인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중국 동북지역, 네이멍구 자치구 등 최단거리에 인접한 동해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우리기업들의 성패는 중국에서 얼마나 비즈니스 성과를 이끌어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갈파한다. 중국은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는 경제위기가 침체되고 급박해질수록 중국의 입을 주시한다. 문제의 발단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이지만 해법은 돈과 기업이 몰려 있는 중국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왜 중국 경제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를 아는 출발점은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가까운 나라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론이 없으며 지리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실제 비즈니스에 들어가면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술과 자본주의보다 더 이해타산에 능한 사회주의가 결합하면서 이해하기 힘든 시장으로 돌변한다. 특히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한꺼번에 중국 대륙에 상륙하여 겉만 보고 판단한 것과 완전히 다른 중국 시장이 전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중국 기업들이 자국시장에서 활보하는 것 같지만 꿰뚫어 보면 '중국에는 중국경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정도로 글로벌 외자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에 시동을 건 후에 '시장을 주되 기술을 끌어 온다'라는 깃발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중국은 글로벌 톱 기업들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의 결과로 세계 1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외국기업의 수출비중이 절반을 넘어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중국에 생수를 팔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음료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코카콜라와 경쟁해야 하고 커피 한잔을 팔기 위해 스타벅스와 어깨를 부딪칠 각오를 해야 한다. 온라인 기업을 대표하는 알리바바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제 중국은 일대일로라는 정책으로 세계의 중심국가를 자처하고 있다. 중국에는 원래 '天下(천하)'라는 말은 있어도 '國際(국제)'란 말은 없었다고 한다. 19세기 들어 서구 열강이 침탈하면서 '국제'라는 말이 잠시 유행하기는 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제'를 '萬國(만국)'으로 고쳐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대책 없이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다가 열강에게 큰 코를 다치고도 "一國(일국)이 萬國(여러 국가)에 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만국'을 고집해 왔다.

그때로부터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제대로 힘이 들어간 중국만의 '거침없는 하이킥'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등에 올라타고 선진국이 모여 사는 경제하늘로 승천하려면 북방경제권으로 진출하려는 지자체와 기업인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가는 이론이 여지가 없는 듯하다. 중국, 러시아 등 북방경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강원남부권역 수출입 기업 초청 간담회

■ 강원영동남부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 기반 조성 마련

지난 4월 18일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는 강원도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의 후원으로 뉴동해관광호텔에서 강원남부권에 위치한 수출입 기업 및 수출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 간 애로사항과 니즈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강원남부권역 수출입 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도 영동남부권 수출입 및 수출을 희망하는 20여개의 기업들과 해당 시·도 의원들, 지자체 담당자들, 기관 및 단체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재)북방 물류연구지원센터 이사장님의 환영사와 강원 중국통상과 박대용과장,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승섭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와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업무협약과 강원도 수출지원시책 및 동해·묵호항 인센티브제도, 경제진흥원의 중소기업지원시책 등이 소개되었다.

이어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을 갖었다.

첫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동희수산 전영식 대표님은 "수출에 필요한 인증을 얻기 위해서는 가공시설의 위생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영세한 기업의 경우 인증 취득의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힘듭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이 자리를 빌어 문의를 드린다."며 현장에서 직접 느낀 애로사항을 말했다. 이에 관계자는 "지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인증마크 미취득으로 수출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 방문을 통해 어려움 등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동호식품 김복자 대표님이 "인증을 받은 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인기있는 동충하초를 이용한 신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이미 저가의 중국산 김치들이 큰 장벽을 이루고 있어 진입이 쉽지 않다."라며 일본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인증사후관리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 김치의 수요가 늘면서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수출기업에게 더욱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 외의 누리텍 민경호 대표님이 기업지원 예산의 확대, ㈜케이다크호스 민현숙대표, KNP코리아 고재칠대표님이 자유무역지역 입주희망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으며, 도 및 진흥원 관계자는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남부권 수출입기업 초청 간담회

전국 항만별 러시아수산물 수입 현황

동해·묵호항 러시아 수산물 수입 4위, 러시아 대게 수입 1위 차지

2018년 러시아 수산물 수입 실적은 부산항, 인천항, 감천항, 동해·묵호항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해·묵호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수산물은 총 23,720만 달러로 5.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해·묵호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수산물 중 99%가 러시아 대게 수입실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묵호항이 국내로 수입되는 러시아 대게 수입량 중 64% 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러시아대게를 수입하는 전국 항만들 중에 1위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수산물 수입 실적

(단위 : 천달러)

순위	항만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1	부산항	2,411,607	2,477,490	2,424,535	2,581,484	3,017,428	67.8%
2	인천항	438,263	452,901	463,467	493,545	561,675	12.6%
3	감천항	175,014	171,121	256,608	364,242	349,421	7.9%
4	**동해·묵호항**	**110,506**	**114,337**	**147,843**	**204,537**	**237,206**	**5.3%**
5	통영항	53,684	61,978	86,019	92,150	117,868	2.6%
6	속초항	35,007	61,239	31,148	58,303	80,459	1.8%
7	평택항	39,668	29,548	33,330	34,346	39,841	0.9%
8	군산항	25,471	27,786	26,169	21,551	21,284	0.5%
9	광양항	8,797	7,901	10,911	12,116	12,749	0.3%
10	그 외	38,335	27,709	21,968	14,627	10,526	0.2%
총 계		3,336,353	3,432,010	3,501,996	3,876,902	4,448,462	100%

주1) 동해항, 묵호항, 북평항의 실적을 통합하여 동해·묵호항으로 재정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러시아 대게 수입 실적

(단위 : 천달러)

순위	항만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1	**동해·묵호항**	**107,600**	**111,040**	**143,543**	**201,535**	**234,492**	**64.2%**
2	속초항	26,266	60,726	30,973	57,972	80,459	22.0%
3	감천항	4,992	8,983	8,822	25,872	34,925	9.6%
4	부산항	21,596	23,710	18,229	13,023	15,592	4.3%
5	인천항	0	196	0	316	0	0.0%
총 계		160,454	204,655	201,567	298,718	365,468	100%

주1) 러시아 대게 수입 코드가 항별·시기별로 상이하여 주로 사용하는 HS030614, HS030624, HS030633 코드의 집계자료를 취합하여 재정리함
주2) 동해항, 묵호항, 북평항의 실적을 통합하여 동해·묵호항으로 재정리함
자료 : 한국무역협회(kita)

동해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1] 허브구축 사업

동해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현황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산물 관련 수출 제조·국제 물류 및 유통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17~19년간 총 251억 원을 투입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 내 저온물류창고(10,155㎡)을 건립하고 기 조성된 자가부지(35,575㎡)를 활용한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다. 콜드체인 구축사업은 수산물 원재료, 가공 제품의 글로벌 유통·물류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가공수출 전지기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530억 원의 생산유발, 430여명의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16선석→23선석, 21년 완료)으로 중계가공무역 촉진 등의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201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9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저온물류창고와 자가부지의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온물류창고의 임대료는 ㎡당 건물가액의 1,000분의 1 이내로 책정되었으나, 아직 완공 전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며, 자가부지는 ㎡당 56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5월 15일 신청접수가 마감된 후 입주희망기업들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는 6월 17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입주기업 모집의 신청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http://www.motie.go.kr/ftz/donghae/) 또는 033-522-618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온물류창고(공장) 조감도 및 시설개요

대지면적	18,200㎡
건축면적	4,295㎡
연 면 적	10,155㎡
주 차 장	90대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물류시설	자동 7,524PLT, 수동 4,796PLT (수동냉장 1,856PLT / 수동냉동 2,940PLT)
급동결실	39㎡(전용)
공장시설	1,863㎡(전용)
사무공간	325㎡(전용)
냉동방식	Central system
냉 매	암모니아 CO2

출처 :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

1) 월간동향 7페이지의 항만·물류 관련 용어사전 참고
2) 산업일보, https://www.kidd.co.kr/news/206523

주변국 국제 동향

러시아 동향

페투호프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장, 서울에서 한국기업들과 프로젝트 실현방안 논의[3)]

4월 16일 페투호프 극동투자유치 및 수출지원청장은 서울에서 대림산업, 롯데칠성, STX, 포스코, 미래에셋 등 한국 기업대표들과 농업, 수산업, 물류 및 항만산업, 가스 화학 및 목재 가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실현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부산으로 이동하여 박호철 부산항만공사 부장과 극동지역 항만 인프라 구축에 관해 논의하였다.

페투호프 청장은 2년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한국투자자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앞으로 한국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동향(동북 3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핵심지역으로 떠오르는 중국 동북3성[4)]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의 핵심지역으로 중국 동북3성이 지목되면서 동북3성과 도시외교를 추진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북3성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옌벤조선족자치구역이 포함돼있다. 특히 북한과 맞닿아있어 남북 평화체제 수립 후 남북 간 철도가 개설되면 1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곳이다.

인천연구원은 '중국 동북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전략과 경제 · 산업 역량 분석'보고서를 통해 동북지역과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 분야의 한계를 극복한 뒤, 기술 교역을 통한 산업 협력, 의약·제조 산업 중심지대인 동북(랴오닝성)과 바이어산업협력, 해·육상 복합 운송시스템 적용 등을 제안했다.

중국 길림성 부근의 북한 밀수 단속 강화[5)]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경제제재 이후 밀수의 최대 거점이 된 곳은 압록강 상류의 길림성 장백현 부근이다. 강폭이 좁고 북한 측의 양강도 혜산시라는 교통의 요충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UN 안보리 경제 제재의 '구멍'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주 비판받던 중국이 밀수에 대해 엄격한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 길림성 장백현의 압록강 상류는 물론, 세관 검사가 엄격해지면서 제재 위반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위장 수입해왔던 방법까지 막혀버렸다.

북한에 있어 중국은 무역의 90%를 의존하는 최대 경제 파트너이자 우방국이다. 그 중국이 UN 안보리 경제 제재에 찬성해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중국 무역은 2017년에 비해 수출이 마이너스 88%, 수입은 마이너스 32%를 기록했다.

북한은 석탄과 철광석, 위탁가공 섬유제품, 해산물 등 주력 수출품이 모두 금지되고, 외화 수입이 큰 타격을 입은 것 외에도 석유제품의 대폭 수입 제한, 자동차 및 기계, 철강 등의 수입도 금지되어 국내 생산 활동과 운수, 건설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3) 극동개발부, 4월 16일, https://minvr.ru/
4) 인천투데이, 3월 21일, http://www.incheontoday.com
5) 아시아프래스, 4월 17일, http://www.asiapress.org/

* 본 내용은 ㈜동호식품으로부터 제공받아 작성한 내용임

㈜동호식품(http://dhkimchi.com/)

동해시에 소재한 ㈜동호식품은 김치제조 업체로 1993년에 설립되어 26년이란 시간동안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6년이라는 세월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동호식품은 김복자대표님의 시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어 2대째 이어져오는 전통있는 기업이다. 김복자 대표님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만든 김치 내 가족이 먹습니다”라는 사훈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들여 맛있는 김치를 담았다며 자부했다. 또한 먹거리산업은 가장 기초적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에 늘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순위로 두며 개인위생 및 제조 생산원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듯 2011년 HACCP 인증 취득, 2017년 ISO22000 인증 취득, 2018년 식품의약안전처장상 수상, 도지사상 수상 등 화려한 연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EBS 극한직업에 명태김치와 함께 동해시가 소개되어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동호식품의 김치는 학교급식, 병원, 온라인 판매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명태김치 외에도 동충하초 백김치, 콩고기 김치를 개발·생산하는 등 김치전문 제조기업으로 자리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동호식품은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사람을 기조”로 한 기업이라는 경영철학으로 매년 겨울철 동해시 노인정에 김치나눔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동해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동해시민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동호식품의 주요 인기 제품

㈜동호식품의 안심제조 과정

농가에서 계약재배로 엄선하여 들여온 품질 좋은 배추를 수확 하여 가져옵니다.

가져온 배추를 입고 검사를 합니다. 배추선별 하여 전처리 작업을 합니다.

배추 이절기에 넣고 배추를 절단 합니다.

1년동안 간수를 뺀 최상의 천일염으로 배추 절임 작업을 합니다.

3단계 세척을 통해 절임배추를 세척합니다.

절임배추 세척후 검수 및 탈수를 하여 포장을 합니다.

배합한 양념으로 양념 속을 넣습니다.

김치 이물질 제거(금속검출기) 확인 후 김치를 Kg에 맞춰 포장합니다

항만·물류 관련 용어사전

콜드체인(Cold Chain)이란

신선물류라고도 하는 콜드체인은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식료품, 화훼류,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 전 과정에 걸쳐 적정한 온도관리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물류시스템을 의미한다.

콜드체인 시스템은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적정저온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냉시설, 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냉장판매대 등이 동시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동해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진행 중인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은 올해 말 완공 될 예정이며, 저온물류창고 및 자가부지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다. 입주희망기업 서류접수 기한은 5월1일~15일까지이며, 서류 심사 후 입주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될 계획이다.

콜드체인 유통과정

출처 : https://checklod.com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매 장 정 보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추암길 198(추암동)
· 전　　화 : 1층 대게판매점 033)522-4774
　　2층 식　　당 033)521-4776
· 영업시간 : AM10:00~PM21:00(연중무휴)
· 이용방법
　①1층에서 러시아대게를 구입하시면
　②1층에서 대게를 쪄서 2층으로 올려드리니
　③2층 식당에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 대게가격 : 수입가격에 따라 변동

***택배 가능합니다.**

본 간행물의 파일은 (재)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www.northernlogis.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